

현대 한국어 성립기의 설정과 하위 구분

- 현대 한국어 문체 형성사의 관점에서 -

한영균*

|| 차례 ||

- I. 연구 배경, 목적 및 필요성
- II. 한국어 문체의 현대화 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두 축
- III. 태동기의 문체 특성
- IV. 확립기 초기의 문체 특성
- V.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현대 한국어의 성립 과정을 밝히기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로 후기 근대 국어 시기와 현대 한국어 사이에 ‘현대 한국어 성립기’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과, ‘현대 한국어 성립기’를 태동기, 확립기, 안정기의 세 시기로 하위 구분할 것을 제안하고, 각 시기의 문체 상의 특성을 밝혀 제안의 근거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논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장에서는 개항 이후 약 90년 사이에 일어난 언어문화사적 변혁이 지니는 의미를 정리하고 그를 바탕으로 현대 한국어 성립기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논하였고, 2장에서는 문체의 변화를 검토하는 데에 서사방식(書寫方式)과 사용역(使用域)의 두 가지를 검토의 축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3장에서는 후기 근대 국어 시기와 현대 한국어 태동기를 구분해 주는 문체 특성으로 ① 한글의 위상 변화와 한글 사용의 확산, ② 다양한 유형의 국한혼용문 사용, ③ 순한글 텍스트와 국한혼용문 텍스트의 공존 및 병존, ④ 한글과 한자 병기 방식의 등장이라는 네 가지를 들어 정리하였고, 4장에서는 태동기와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확립기를 구분해 주는 문체 특성으로 ① 한글 및 한자 병기 방식의 확산, ② 현대적 국한 혼용문체의 등장이라는 두 가지를 확인하였다.

주제어 : 현대 한국어 성립기, 국한혼용문, 한글과 한자의 병기, 현대적 국한혼용문

I. 연구 배경,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 개항 이후 90년 사이의 언어문화사적 변혁

19세기 후반의 개항 이후 약 90년간 한국 사회가 겪은 정치·사회·문화적 변혁은 격동이라는 말로는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로 극심한 것이었다. 갑오경장, 대한제국의 성립과 멸망, 일제 강점, 광복, 미군정, 남북 분단, 대한민국의 독립, 6·25, 4·19, 5·16 등 국내의 정치·사회적 사건만해도 그 하나하나가 한국 현대사의 전환점 혹은 변혁기를 표상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면서, 현대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필연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대 한국어 문체 형성사라는 관점에서 이 시기의 정치사적 주요 사건의 발생과 비슷한 시점에 언어문화사적 전환을 가져오는 일들이 일어난다.

개항을 기점으로 한 외국/외국어와의 접촉을 통해 촉발된 국문/국어에 대한 인식은 문자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¹⁾ 1894년의 공문식(公文式) 공포는 현대 한국어 문체의 형성에 한 획을 긋는다.²⁾ 이 공문식은 중세적 문자 생활의 중심이자 당대 동양의 공통 문어였던 한문을 조선

1) 외국/외국어와의 접촉이 당대 지식인의 국문/국어에 대한 인식과 문자 생활의 변화를 가져온 데에 대한 논의는 황호덕(2002) 2장 및 4장 2절 참조.

2) 공문식의 내용과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김주필(2007 : 195-205) 참조.

의 공적 문자 생활에서 배제하고, 고유의 개별 문자(국문/한글)의 자존을 국가적으로 공식화한 한국 문자 생활사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이 이후 십 수년간은 공적 문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한 국문 사용의 확산과 함께, 경전적 문자로서의 진서(眞書)에서 보통 표기 수단의 하나로 격하된 한자와, 국가 고유의 문자(국문)로 재인식된 한글을 섞어 쓰는 국한혼용문의 사용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된 시기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순한글과 국한혼용이라는 서사방식(書寫方式)의 조합을 통해 한국어 문체의 현대적 맹아를 싹틔우고 키울 기회를 본격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기간은 대한제국기 십 수년에 불과했다. 대한제국의 멸망으로 조선어는 국어로서의 자격을 잃었고, 그에 따라 국문/한글의 사용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제 강점기에 의한 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선어 혹은 국문/한글의 사용과 한국어 문체의 현대화 과정은 한 단계 더 나아갔다. 후기 근대국어 시기 이후 민중의 일반적 서사방식이었던 순한글과,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쓴 이 시기의 새로운 서사방식인 국한혼용문³⁾의 통합을 위한 다양한 모색과 함께, 이 시기 조선어 연구자들은 피식민지 언어의 고유 문자를 이용한 표기법의 표준화와 보급이라는 세계 문자사상 전무후무한 업적을 이룬 것이다. 부분적 수정은 있었지만 이 때 정해진 맞춤법은 80년 이상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1930년대의 맞춤법의 제정과 보급은 1894년 공문식의 공포를 토대로 형성되기 시작한 현대 한국어 문체가 공고히 자리잡게 한 또 한 번의 전환점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독립과 함께 한국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어가 되었다. 이후 남

3) 이 시기에 쓰인 국한혼용문을 새롭다고 이야기하는 까닭에 대해서는 3.2. 참조.

복은 분단되었지만 앞서 제정되고 보급된 맞춤법 덕분에 남북의 문어는 당분간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독립 직후 발발한 6·25는 당시 인구의 1/4 이상이 원거지를 떠나 새로운 지역에 터잡게 하는 민족의 대이동을 가져왔고, 이러한 민족의 대이동은 맞춤법에서 규범적 한국어의 바탕이 된 서울말과 지역 방언의 대대적 교섭을 가져왔다. 이 글에서 논의하는 문체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 한국어의 형성에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남기게 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6·25를 전후하여 『조선말큰사전』이라는 현대 한국어의 (어휘적) 틀을 종합적으로 담은 단일어 대사전이 완간된다. 언어문화적으로 한국어라는 개별 언어의 객관적 실체를 확인할 토대가 되고, 어문규범과 사전을 바탕으로 한 ‘규범적 국어 교육’⁴⁾을 위한 근간이 마련된 것이다. 1960년대 이후의 문체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체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근간적 요소의 확립과 그를 바탕으로 한 ‘국어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항 이후의 약 90년에 걸치는 시기는 일련의 언어사적 변혁을 통해서 문자 생활 및 문어의 변화를 가져온 격변기였던 한편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체가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린 시기였다. 그러나 한국어사의 시대 구분에서 이 시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없었던 듯하다. 후기 근대국어라 지칭해 온 18

4) ‘규범적 국어교육’이란 이전 시기의 국어/조선어 교육과의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다. 이전의 국어/조선어 교육이 문식력(literacy)의 신장에 일차적 목표를 둔 것이었다면 독립 이후의 국어교육은 문식력의 신장과 함께 맞춤법과 사전에 바탕을 둔 어문 규범의 학습이 중요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기~19세기의 한국어와 개항 이후 시기의 한국어 사이에 획을 긋는다면 무엇을 근거로 할 것인지나, 약 90년에 걸치는 이 시기의 한국어를 동질적인 것으로 보아도 좋은 것인지 아니면 좀더 세분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국어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할 만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이 시기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에서는 개항 이후 대한제국의 멸망까지를 다루는 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이후의 일제 강점기나 대한민국의 독립을 전후한 시기의 한국어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⁵⁾ 반드시 그래서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 시기를 포괄해 가리킬 수 있는 국어사적 관점의 용어조차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다만 개항 이후 대한제국의 멸망까지를 개화기, 근대 계몽기, 혹은 최근세라 하여 후기 근대국어 시기 및 일제 강점기와 구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⁶⁾

현대 한국어의 출발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개항기부터 대한제국기를 관통하는 시기(이른바 근대 계몽기)의 한국어 문어와 일제 강점에 의해 조선/조선어에 대한 일제/일본어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반면 역설적으로 현대 한국어 문체가 확립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1920~30년대의 한국어 문어, 그리고 광복 이후 6·25, 4·19, 5·16를 거쳐 대한민국/한국어가 일제/일본어의 영향에서 벗어난 1960년대 이

5) 국어학적 연구로는 이병근 외(2007), 송철의 외(2007), 안예리(2012, 2013a, 2013b) 등이 있고, 문학 연구에서 1910년대 이후의 문체를 다룬 것으로 권용선(2004), 문혜운(2006), 박진영(2008), 김영민(2010), 김민섭(2010), 황지영(2010), 정한나(2011) 등을 들 수 있다.

6) 이들 용어 이외에 이병근 외(2005), 송철의 외(2008)에서는 이 시기를 가리켜 ‘근대 초기’라 했고, 홍종선 외(2000)에서는 이 시기를 아예 ‘현대 국어’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 초기란 역사학의 시대 구분을 차용한 것일 뿐 한국어의 특징을 바탕으로 한 용어가 아니고, 이 시기를 ‘현대 국어’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후의 한국어 문어를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1960년대 이후의 한국어 문체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문체와 유사하다고 보아도 크게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개항 이후 약 90년에 걸쳐 형성된 문체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문체에 직접 이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의 문체는 그 이전 시기(후기 근대국어 시기)의 한국어 문체와 다르고, 또 하위 시기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대 한국어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 90년에 걸친 시기에 겪은 한국어 문체의 변화 과정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문체의 형성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필자는 이 시기를 이전 및 이후 시기와 구분할 수 있게 해 주는 동시에 이 시기의 국어사적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현대 한국어 성립기’라는 용어를 개항 이후 약 90년을 가리키는 데에 사용하려 한다.

한편 이 시기의 문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약 90년에 걸치는 ‘현대 한국어 성립기’의 한국어를 동질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언어 사용 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좀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언어 사용 상의 특징이라고 해도 여러가지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인데, 이 글에서는 현대 한국어 문체의 형성 및 정착과 관련된 특징적 양상을 하위 시대 구분의 일차적 기준으로 삼는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시기는 크게 태동기(개항 이후~대한제국의 멸망), 확립기(일제강점기), 안정기(광복~『조선말큰사전』의 완간)의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⁷⁾ 이러한 구분이 단순히 정치적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현대 한국어의 문체 형성

7) ‘현대 한국어 성립기’라는 용어와 ‘태동기, 확립기, 안정기’라는 용어에 대해서 심사위원 중의 한 분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 필자도 이 글에서 사용한 용어가 가장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시기를 가리키는 용어나 하위 시대 구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과정에서 일어난 언어적 변화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보이는 한편, 각 시기별 문체 특성을 검토하고 각 시기별 문체 특성이 현대 한국어의 문체 형성 및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 이후의 주된 내용이 된다. 다만 이 글에서는 태동기와 확립기의 구분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이 두 시기의 문체상 특징과 그와 관련된 사실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현대 한국어 문체의 형성 및 정착 과정의 대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II. 한국어 문체의 현대화 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두 축

필자는 이 글에서 현대 한국어 성립기의 문체 특성을 검토하는 데에 크게 두 가지 요소를 축으로 삼는다. 서사방식(書寫方式)과 사용역(register)이 그것이다. 이 장에서는 현대 한국어 성립기의 문체를 검토하는 데에 왜 이들 두 요소를 축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정리하기로 한다. 3장 및 4장에서 논의에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1. 서사방식과 한국어 문체의 현대화

서사방식(書寫方式)이란 글을 쓸 때 어떤 문자를 사용하는가를 가리킨다. 그런데 한국어 문체의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그 의미가 좀더 함축적이다. 특히 현대적 국한혼용문의 형성과 관련해서 이 시기 국한혼용문 텍스트에 대한 문체사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 시기 국한혼용문에 대한 연구는 국한혼용문의 구조적 특성, 유형, 형성 과정, 위상 등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서사방식과 문체 현대화의 상관성이다. 특히 태동기 및 확립기에는 순한글인가 국한혼용인가 하는 서사방식에 따라 문체의 차이가 뚜렷히 드러나기 때문에 문체 변화의 관점에서 순한글을 사용한 경우와 대조가 필요한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히 다음 세 가지에 초점이 놓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① 하위 시기별로 문체 현대화의 정도가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현대화 정도를 측정하고 기술할 것인가 하는 문제.
- ② ‘순한글’과 ‘국한혼용’이라는 두 가지 서사방식이 공존 및 병존하게 된 까닭과 그 한국어 문체사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
- ③ 공존/병존하던 두 서사방식은 어떤 과정을 거쳐 현대 한국어 문체로 변전되는가 하는 문제.

①의 국한혼용문과 순한글 텍스트가 보여주는 문체 현대화의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은 부분적이거나 밝혀져 있다. 순한글 텍스트의 현대화 정도가 국한혼용문 텍스트에 비해 빠르며 그것은 어휘와 구문 두 측면에서 확인된다는 것이다(한영균 2008, 2009). 그러나 사용역에 따른 문체 현대성의 차이나 어휘적 변화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적이 없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의 성립기 전반의 변화에 대한 검토도 과제로 남아 있다.

②의 두 서사방식이 공존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글의 주제나 독자 계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한영균 2008, 2014b, 김영민 2010, 김재영 2010 등). 아울러 이 시기의 국한혼용문의 위상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국한혼용문이 이전 시기의 한문이 담당하던 역할을 이은 것으로 이야기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관점을 견지하는 경우 자칫 순한글 텍스트와 국한혼용문 텍스트의 양립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쉽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 확립기에 들어서면 순한글 텍스트와 국한혼용문

텍스트는 통합의 길을 걷는다. 따라서 순한글 텍스트와 국한혼용문 텍스트를 병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 시기 문어 사용상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⁸⁾ 그 배경에 대한 언어문화사적 의미를 밝히는 일, 그리고 순한글 텍스트와 국한혼용문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어휘, 문법 요소의 대응 양상에 대한 분석 등이 앞으로 고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③은 현대 한국어 성립기에 순한글 텍스트와 국한혼용문 텍스트가 어떻게 통합되는가 하는 말 그대로 한국어 문체 현대화의 구체적 과정을 밝히는 문제와 연관된 것이다. 현대 한국어의 문체를 다룰 때 국한혼용문체란 한자를 섞어 쓴 글을 가리킨다. 한자어가 아무리 많이 섞여 있어도 한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국한혼용문체라고 하지 않는다. 이희승 선생의 <기미독립선언문> 번역문을 예를 들어 보인다.

- (1) 가.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 가지게 하는 바이다. **5천 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두루 펴서 밝힘이며,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내세워 일으킴이니,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천하**의

8) 오늘날에도 순한글 텍스트와 국한혼용문 텍스트가 함께 사용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순한글 텍스트와 국한혼용문 텍스트를 병렬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오늘날의 공용과 전혀 다르다. 후술 참조.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가. 우리는 이에 우리 朝鮮이 獨立한 나라임과 朝鮮 사람이 自主의인 民族임을 宣言한다. 이로써 世界 萬國에 알리어 人類 平等의 큰 道義를 分明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子孫 萬代에 깨우쳐 일러 民族의 獨自의 生存의 正當한 權利를 永遠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5千 年 歷史의 權威를 依支하여 이를 宣言함이며, 2千萬 民衆의 忠誠을 合하여 이를 두루 펴서 밝힘이며, 永遠히 한결같은 民族의 自由 發展을 위하여 이를 主張함이며, 人類가 가진 良心의 發露에 뿌리박은 世界 改造의 큰 機會와 時運에 맞추어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問題를 내세워 일으킴이니, 이는 하늘의 指示 이며 時代의 큰 趨勢이며, 全 人類 共同 生存權의 正當한 發動 기에, 天下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나. 吾等은 茲에 我 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宣言하 노라 此로써 世界 萬邦에 告하야 人類 平等의 大義를 克明하며 此로써 子孫 萬代에 誥하야 民族 自存의 正權을 永有케 하노라 半萬年 歷史의 權威를 仗하야 此를 宣言함이며 二千萬 民衆의 誠忠을 合하야 此를 佈明함이며 民族의 恒久如一한 自由 發展을 爲하야 此를 主張함이며 人類의 良心의 發露에 基因한 世界 改造의 大機運에 順應并進하기 爲하야 此를 提起함이니 是 | 天의 明命이며 時代의 大勢 | 며 全人類 共存 同生權의 正當한 發動 이라 天下 何物이던지 此를 沮止抑制치 못할지니라

(1가)는 (1나)의 현대어역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1가)의 문체를 국한 혼용문체라고 하지는 않는다. (1가)의 밑줄 친 부분(한자어)을 한자로 바꾼 (1가')를 국한혼용문체라고 한다. 한편 (1가)와 (1가')는 사용하는 문자만 달라졌을 뿐, 글을 구성하는 언어 단위는 동일하다. 이에 비해 (1가)와 (1나)는 전달하는 내용은 같지만 글을 구성하는 언어 단위가 다르다. 심지어 (1가)를 (1나)의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다.

현대 한국어 태동기에는 (1가)와 (1나)의 관계처럼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텍스트를 구성하는 언어 단위가 다른 국한혼용 텍스트와 순한글 텍스트가 ‘병존’하는 예가 다수 존재한다.⁹⁾ 그리고 이들 두 서사방식을 사용한 텍스트는 문체의 현대화 정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동일한 내용을 전하면서도 서사방식에 따라 텍스트를 구성하는 언어 단위가 다른 텍스트가 병존한다는 것이 현대 한국어 문체의 형성 과정 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1나)와 같은 국한혼용문이 (1가)와 같은 현대 한국어의 국한혼용문으로 변전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전에서 어느 쪽이 중심이 되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국어 문체의 현대화 과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서사방식에 따른 문체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 이 시기 문체 연구의 한 축이 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2. 현대 한국어 성립기의 사용역

사용역(register)이란 코퍼스언어학에서 전달 매체의 차이(문어/구어 ; 인쇄물/비인쇄물 ; 정기간행물/비정기간행물 등), 필자/화자가 상정하는 독자/청자와의 관계(격식/비격식 ; 공적/사적 등), 전달하는 주제와 내용(정보/상상 ; 학술/비학술 등) 등에 따라서 텍스트 혹은 발화를 구성하는 요소(언어 단위)의 용법이 달라지는 것을 분석 결과의 해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분석 대상 자료의 하위 구분 방법의 하나다. 텍

9) ‘병존’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두 서사방식을 사용한 텍스트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국한혼용문과 순한글 두 서사방식을 이용해 표현하는데, 각 텍스트를 이루는 언어 단위가 다르고, 또한 양자의 문체 현대화 정도도 다르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한영균(2014b)에서 살핀 ‘다중 번역 서사물’의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3.3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트 장르와 유사하지만 그보다는 좀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시기에 출판된 텍스트의 문어를 대중매체어, 문학어, 교육어, 행정·법률어, 학술어, 종교어의 여섯 가지 사용역으로 나누어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¹⁰⁾ 그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는 현대 언어학의 문체 연구에서는 사용역에 따른 언어 사용의 차이를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 바, 통시적으로 현대 한국어 문어의 형성과 정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밝히려 할 때에도 사용역별 분석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사용역에 따라서 현대적 국한혼용문체의 형성 과정과 사용 양상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며, 셋째는 현대 한국어 확립기(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해 강제된 조선어 사용의 제한이 사용역별로 달리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태동기와 확립기의 문체 특성을 대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대조가 가능한 사용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사용역별 언어 특성 및 현대 한국어 문체 형성과 관련된 문제를 정리하면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대중매체어는 간단히 말해 신문·잡지의 언어다. 대중매체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시기 글쓰기 방식, 국문/한글의 보급, 국한혼용문의 확산 등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 성립기의 대중매체어에 대한 검토는 1910년 대한제국의 멸망으로 조금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된다.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조선인에 의한 한반도 안에서의 대중매체 발간이 극히 제한되고,¹¹⁾ 1920년에 이르러야 다시 대중매체의 간행이 어느 정도 허용되

10) ‘언간, 일기, 수기’ 등 개인적 기록(필사 자료)은 사용역 구분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들이 국어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공적으로 간행되지 않은 까닭에 이 시대 문체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동기 및 확립기 필사 자료를 검토해 보면 필사 자료가 간본 자료에 비해서 문체의 변화를 앞서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들은 시대별 문체 특성을 다루면서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기 때문에 태동기~확립기 사이의 문체의 변화를 관찰하는 데에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시간적으로 그리 길지 않은 1910년~1920년 사이에 현대 한국어 문체 형성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문체 관찰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각 시기의 문체 특성을 논의하는 부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문학어는 문학적 서사물(敍事物)에 쓰인 언어를 가리킨다. 현대 한국어 성립기의 문학적 서사물은 같은 시대에 간행된 것이라 해도 내용, 형식, 문체에 큰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단형서사에서 출발해서 신소설을 거쳐 현대소설로 이어진 것으로 이야기된다(김영민 1997/2003). 그러나 고전문학에서 현대문학으로의 전환이 일어난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텍스트를 현대 한국어 성립기의 문학어 자료로 포함할 것인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현대 문학의 형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져서 이 시기의 문학적 글쓰기와 관련한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필사본, 구활자본 고소설류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후기 근대국어 시기의 한글 고전소설을 전승한 것이어서 현대 문학 텍스트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의 문체 형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이들 자료가 태동기와 확립기 사이의 문체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고리가 된다. 후기 근대국어 시기의 고전 소설이 ‘순한글’이라는 서사방식을 사용하는 데에 비해서 1910년대에

11) 신문의 경우는 종교 관련 신문을 제외하고는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每日申報』가 유일하며, 잡지의 경우는 신문보다는 규제가 덜 심해서, 한반도 안에서의 잡지 간행도 어느 정도 허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신중진 2011 : 119, 122-123). 1910년대의 신문 잡지에 대해서는 신중진(2011)에서 정리한 바 있지만, 자료가 현재 전하는 것과 이름만 전해지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목록만 제시한 것이어서 국어사 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기술 내용의 오류 및 목록상의 누락도 있어서 좀더 정밀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간행된 구활자본 고소설 중에는 순한글로 된 것 이외에 한자를 병기한 자료들이 다수 나타난다(이운석 2011). 이렇게 한자를 병기한 구활자본 고소설 중에서 현대 한국어 문체로의 연결 고리가 되는 방식을 보여 주는 예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4.1. 참조). 이와 함께 1910년대가 문학작품의 번역과 번안이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인 한편(박진영 2008, 2011), 현대 소설이 등장한 시기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10년대의 문학어 텍스트는 태동기와 확립기 사이의 한국어 문체의 차이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에 값하는 것이다.

교육어는 기본적으로 보통교육의 실시와 함께 도입된 교과서류에 사용된 언어를 가리킨다. 1895년~1899년 사이에 학부에서 출판된 교재류가 대표적이다.¹²⁾ 그런데 현대 한국어 태동기는 시대적 특성상 교과용 도서와 계몽용 도서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적지 않고, 서구 분과학문의 수입 초창기였던 까닭에 보통·중등 교육용 교재와 분과학문의 개설적 내용을 다룬 학술서와의 구분도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교육어 텍스트는 문체라는 면에서는 일부의 자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한혼용문으로 만들어진 다. 한편 교과용·계몽용 도서류는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대중매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보급과 사용이 크게 위축된다. 조선어 독본과 수신서류를 제외한 교과용 도서는 극히 드문 것이다.¹³⁾ 따라서 현대 한국어 문

12) 학부 간행 도서에 대한 포괄적 검토로는 이철찬(2008) 참조. 이 시기의 교과서 검토에 관한 자료 분석도 포함되어 있어서 사찬본(私撰本)이 교재로 사용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다만 이철찬(2008)에서 정리한 학부 도서 목록에는 누락된 것이 있다. 한영균(2013 : 245) 참조.

13) 교과용 도서는 아닐지라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실용적 목적의 도서는 1900년대에 비해 그 수는 줄지만 191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간행된다. 특히 簡牘類, 『時文讀本』, 『(實例)書式大全』, 『現行書式大全』 등의 글쓰기 혹은 서식에 관한 서적과 『말의 소리』, 『조선말본』 등의 한국어 문법서, 『(最新 通俗)衛生大鑑』, 『朝鮮 衛生要義』, 『醫方綱要』, 『通俗家庭衛生學』 등 위생 관련 서적 등을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체의 형성 과정을 관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학술어는 서구 분과학문의 도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서류에 사용된 언어를 가리킨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교과용 도서와의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학술어 영역을 설정해도 좋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전문성이 높은 분야의 개설서들은 학술어 자료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의학·약학(해부학, 산과학, 약물학 등), 자연과학·이학(물리, 생물, 화학, 수학 등), 법학·행정학, 경제학·상학 교재를 그러한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어의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특히 학술용어의 수입과 번역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역시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 대부분이 일어본을 사용하게 되어 이 사용역의 자료들도 단절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법률·행정어란 갑오경장 이후 만들어진 『地方調査案』(內部, 1895), 『法規類編』(내각기록국, 1896) 등의 법률·규정, 『大朝鮮日本留學生親睦會規則』(1896), 『紳商會社章程』(1897), 『증남포목포각국조계장정』(1897) 등 장정·규칙, 『開國五百四年八月事變報告書』(1896), 『問道案』(1907~1909) 등 공문서에 사용된 언어를 가리킨다. 이 시기의 법률·행정어 자료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국한혼용문으로 되어 있다. 이 법률·행정 관련 텍스트 역시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¹⁴⁾

종교어는 기독교, 불교, 천도교, 시천교 등의 경전, 교리서, 가사 등에 쓰인 언어를 가리킨다. 특히 현대 한국어의 문체 형성 및 정착과 관련해서는 기독교(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러시아 정교회)의 텍스트에 쓰인 언어에

그러나 이들을 교육어 자료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14) 『最新朝鮮大法典』(1912), 『朝鮮民事刑事令』(1912), 『朝鮮民籍要覽』(1915) 등의 법률서가 총독 정치 초기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중기, 후기에는 거의 조선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한 논의가 중심이었다. 현대 한국어의 문체 형성 과정을 검토하는 데 종교어를 개별 사용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한역(韓譯) 성경이 한글의 보급을 비롯해서 이 시기의 언어문화에 미친 영향이 컸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것이기도 하고, 태동기와 확립기 사이에 일어난 현대적 국한혼용문체의 등장 및 보급에 개신교의 국한혼용문 성경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이 확인된다는 점과 일제의 조선어 출판물 제한에도 불구하고 종교어 영역의 자료는 상대적으로 1910년대의 자료가 많이 남아 있어 태동기와 확립기 사이의 문체 변화를 살필 수 있다는 점도 종교어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는 까닭이 된다.

Ⅲ. 태동기의 문체 특성

현대 한국어의 문체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1890년대의 중·후반부터 1900년대에 걸친 시기는 이전 시기(후기 근대국어 시기)와 분명히 구분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근대적 행정 및 교육 제도의 도입, 대중매체의 등장과 보급, 기독교의 전파, 새로운 문학 장르의 대두, 외국 서적의 번역·번안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확산 등이 이 시대의 중요한 사회적·문화적 변화라고 한다면, 이에 부응하기 위한 언어적 대응이 시작되고 본격화한 시기인 것이다. 1장에서 개괄적으로 살폈듯, 이 시기의 언어적 대응은 특히 문어 사용에서 두드러진다. 이전 시기에는 계층에 따라 사용하는 문어가 한문과 한글로 나뉘어 있었고, 공식적인 문어로는 한문이 사용되었던 데에 비해서,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한글이 공식적인 문어로서도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된 한편, ‘국한혼용’이라는 이 시기 특유의 서사방식이 새로이 등장하고, 국문 및 국한혼용문의 사용이 ‘공문식’이라는 국가적 시책으로 시행

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언어적 대응이 현대 한국어 문체의 형성이라는 국어사적 변혁을 촉발하는 것이다.¹⁵⁾ 이러한 관점에서 태동기의 문어 사용상의 특징을 문체 변화에 초점을 두어 요약하면 다음 네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 ① 한글의 위상 변화와 한글 사용의 확산.
- ② 다양한 유형의 국한혼용문 사용.
- ③ 순한글 텍스트와 국한혼용문 텍스트의 공존 및 병존.
- ④ 한글과 한자 병기 방식의 등장.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절을 구분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1. 한글의 위상 변화와 한글 사용의 확산

이 시기의 한글은 공문식의 공포를 통해 국문으로서의 자격을 지니게 된다. 이전 시기와는 문자생활에서의 위상이 달라진 것이다. 이와 함께 그 사용역이 확대된다. 후기 근대국어 시기에도 다양한 유형의 한글 필사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그러나 대개 여성 내지 한문 문식력을 가지지 못한 이들을 독자로 상정하며, 사용역도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태동기에 들어서면 대중매체어, 학술어 등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을 포함해서 문학어, 교육어, 법률·행정어, 종교어 등 모든 사용역으로 사용 범위가

15) 이러한 이 시기 문어 사용에 대해 권보드래(2000 : 131-144)에서는 ‘이중의 기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16) 한영균(2015 : 30)에서는 ① 고문서류, ② 고소철류, ③ 교화·교육서(여성교육서)류, ④ 기행문류, ⑤ 실기(實記 : 실기·전기)류, ⑥ 언간류, ⑦ 역사서류, ⑧ 연행록류, ⑨ 일기류, ⑩ 제문류, ⑪ 조리서류, ⑫ 종교서류, ⑬ 필기(筆記 : 야담·설화)류, ⑭ 행정(行狀)류의 열 네 가지 유형을 들고 있다.

확대된다. 한글은 이 시기에 이른바 내방(內房)의 문자에서 국민의 문자로 그 기능이 확대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2. 다양한 유형의 국한혼용문 사용

이 시기의 국한혼용문은 앞선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구결문, 이두문, 언해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¹⁷⁾ 15~16세기의 국어사 언해 자료는 대부분이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쓴 국한혼용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서면 상황이 좀 달라진다. 17세기 이후의 국어사 자료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만들어진 문헌의 복각이나 중간인 경우, 시가류라는 향유층이 다른 문학 자료, 역학서류, 한자 학습서 등 외국어 학습과 관련된 자료를 제외하고는 순한글로 된 것만 전해진다(이호권 2008). 17세기 이후에도 한문 해득력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소설, 기행문, 기술서, 교화서, 종교서 등 많은 문헌들이 번역(언해)되었지만, 이들 문헌에는 한글만 사용한다. 한자와 한글을 섞어쓰는 국한혼용이라는 서사방식은 18, 19세기에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읽고 쓰는 데에 한문 문식성을 지닌 이들은 한문을, 그렇지 못한 이들은 한글을 사용하는 이중적 문자생활이 일반적이었던 것이다(안대회 2006, 정병설 2008). 이것이 19세기 말에 다시 등장한 국한혼용이라는 서사방식을 새롭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까닭이다.¹⁸⁾

17) 이러한 관점을 보이는 연구로는 김상대(1985), 심재기(1992/1999), 민현식(1994) 등을 들 수 있다.

18)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는 『西遊見聞』 서문에 나오는 『西遊見聞』의 문체에 대한 유길준의 친구의 반응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我文과 漢字를 混用’한 『西遊見聞』의 문체가 ‘文家の 軌度를 越’한 것이어서 ‘譏笑를 未免’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런데 새로이 등장한 국한혼용문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었다. 한영균(2013)에 의하면 이 시기 국한혼용문은 한문 문법과의 혼효성 정도에 따라서 ‘① 한문의 요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한문 문법의 간접 결과가 체언구에 반영된 경우 ③ 한문 문법의 간접 결과가 용언구에 반영된 경우 ④ 기타’로 정리할 수 있고, 이러한 한문 문법의 영향 정도에 따라 최소한 네 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나뉘는 것이다.

순한글과 국한혼용이라는 두 가지 서사방식이 그 나름의 영역을 가지고 같은 시기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이 시기 사회적·문화적 변화에 대응한 문어 사용 상의 변화가 복선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유형의 국한혼용문이 같은 시기에 병렬적으로 사용되는 것은(김홍수 1994, 홍중선 2000, 임상석 2008, 한영균 2013a 등 참조) 현대 한국어 문체의 확립이 선조적(線條的)이면서 순차적(順次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말해 주는 한 방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순한글 텍스트와 국한혼용문 텍스트의 공존 및 병존

2.1.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지만, 이 시기에는 국한혼용문 텍스트와 순한글 텍스트가 2.2.에서 구분한 여섯 사용역에서 모두 공존한다. 독자를 어떤 계층으로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서사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순한글로 간행한 『帝國新聞』과 국한혼용문으로 간행한 『皇城新聞』이 십여 년간 공존했다는 사실이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공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텍스트를 구성하는 언어 단위가 다른 텍스트가 국한혼용과 순한글이라는 두 가지 서사방식으로

있는 것이다. 태동기 초기 식자층의 인물이 국한혼용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만들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런 경우를 가리켜 ‘병존’이라고 부르려고 하는데, 이렇게 국한혼용 텍스트와 순한글 텍스트가 ‘병존’하는 것은 태동기 문어 사용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태동기 이전이나 이후에는 이런 유형의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¹⁹⁾

(2) 가. <裴說氏의 公判 顛末> 第一日本月十五日 朝에 韓清間 大英國 皇帝 陛下의 高等裁判所에 京城 日人 事官 三浦彌五郎氏가 告訴함에 **基하야** 本社 前社長 裴說氏의 對하 公判을 京城에 在하 英國 總領事館內에서 **開庭하얏는디** 上海에 駐在하 에푸, 에쓰, 에이, 섰은 判事 閣下가 裁判官으로 **執權하야** 坐定하고 英國 皇帝 陛下의 **頭等** 辯護士 에취, 피, 일킨손씨가 **出訴하고** 神戶에 **在하** 英人 씨, 엔, 크로쓰 씨가 裴說氏의 委托를 **受하야** 辯護하는디 公判하 동안에 裴說氏는 **其側에 坐하**를 許하고(大韓每日申報) 1908. 6. 20. 別報)

나. <비설씨의 공판 언말> 데일일 본월 십오일 **아침에** 한국과 청국간에 있는 대영국 황태 폐하의 고등지판소에 경성 일본 리스판 삼포 미오랑씨가 고소함을 **인하야** 본사 전사장 비설씨의 디하 공판을 경성에 **있는** 영국 총령스관에서 **시작하엿는디** 상히에 주지하 에 푸, 에쓰, 에이, 섰은 판스 각하가 지판관으로 **권세를 가지고** 좌당 하엿고 영국 황태폐하의 **일등** 변호스 에취, 피, 일킨손 씨가 **송명** **에 공소하**고 일본 신호에 **있는** 영국인, 씨, 엔, 크로쓰 씨가 비설씨

19) 이와 유사한 것으로 태동기 이전의 자료로 ‘閑中錄’이 있고, 확립기 자료로는 『新訂育兒法』(김연배 편술, 1912, 보급서관)을 들 수 있다. ‘閑中錄’의 경우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만들어진 순한글본, 한문본, 국한혼용본이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홍기원 2009), 한문본과 국한혼용본의 생성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新訂育兒法』은 하나의 텍스트 안에 두 서사방식을 사용한 글을 대조해 보인다는 점이 별도의 텍스트로 존재하는 태동기 자료와 조금 다르다. 1920년대에도 흥난과 축약역의 『哀史』(1922)와 『장발장의 설움』(1923)이 있다. 그러나 그 성격이 태동기 자료와는 다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박진영 2008).

의 위탁을 밧아 변호하느니 공판할 동안에 비설씨는 그 것헤 안기
를 허하고 (『대한미일신보』 1908. 6. 20. 별보)

- (3) 가. 悲夫라 我韓 數百年來 對外의 歷史여 東方에 一流 寇만 入하야
도 學國이 蒼黃하고 西隣에 一嘖言만 來하야도 盈庭이 惶惶하야
依違苟活에 耻辱이 紛加하니 我民族의 劣弱은 果天性이라 不可
變歟아 無涯生이 曰 否々라 不然하다(장지연 『乙支文德』 1면,
1908년, 광학서포)

나. 슬허다 우리 韓國의 수백년 이리에 外國을 더허 려스를 볼진디 동
방에서 허 적은 무리의 도적만 드리와도 전국이 창황망조하며 서
편에서 허 마디 쑤지람만 와도 온조명이 당황실식하다가 그렇더령
구춌로이 지너여 붓그러움과 육이 날노 더허여도 조곰도 궤이허
녁일 줄을 알지 못하니 우리 민족은 텃싱으로 용렬하고 약하야 능
히 변화치 못할가 무애싱이 골오디 아니라 그렇치 안타(김연창영,
『을지문덕전』 1면, 1908년 광학서포)

- (4) 가. 兒童을 教育함은 못치 園丁의 花草와 如하야 培養이 宜를 得흔則
風姿를 具保하고 否흔則 珍草 奇花라도 또흔 荒敗에 歸하야 橫
枝亂葉의 長蒿이 天然흔 佳麗를 損함은 初에 善히 栽植치 못함
이오(현공림·박영무 공역, 『新編家政學』 10면, 1907년, 일한서
적)

나. 아해를 길으는 법은 동산에 쏘나무 심으는 것과 갓하야 배양하느
법을 적당케 하면 변변치 못흔 화초라도 또흔 금병에 채화보담 화
려홀지오 배양을 적당히 하지 못홀지면 비록 향기 만흔 난초라도
말나서 이올지니라(박정동 『녀즈보통 신찬가정학』 8면, 1907년,
일한도서인쇄)

- (5) 가. 乙未 八月 二十日 事變에 犯關흔 事와 王后 陛下의 遭弒흔 事
와 其他 被殺흔 事에 關흔 前後事實을 詳查報告도 하고 此次
에 就捉흔 干連諸人을 查覈成案하라 眞신 貴大臣의 命命을 承흔
지라 當日 事變에 關흔 諸證參人을 訊問하고 同人等의 一切書類
를 考閱흔 後에 其事實은 概知홀지라(『開國五百四年八月事變

報告書』, 1면, 1896년, 法部)

나. 을미 팔월 이십일 스변에 **대궐 범헌 일과** 왕후 폐하의 **피히헌신** 일과 **그 다른 이들** 피슬헌 **일에 관계헌** 전후 스실을 **자세히 사실하야 보히기도** 하고 **이번에 잡힌 상관된 모든 사람들**을 **확실히야 책을 돈들나** 헌신 귀 대신의 명령을 **맞든지라 그 날** 스변에 **관계헌 모든 중참헌 사람들**을 신문하고 **그 사람들**의 일테 서류를 **상고헌** 후에 **그** 스실은 **대궐 알지라**(『을미사변기록』²⁰⁾ 1면, 1896년)

(6) 가. 大槩 諸人이 筆을 擧하야 我等 中에 成헌 事로 書を 著述헌 거슨 初로부터 親히 見하고 道の 일군된 者들이 我等의게 傳授헌 거시라 我로 仔細히 根源을 推察함으로 次例로 書하야 德오빌노 閣下의게 遺하는 거시 宜헌 줄노 知하노니 此는 爾로 헌여곰 學헌 바에 確實함을 知케 함이로라 (『新約全書 국한문』 1906 누가 1장 1절~4절)

나. 대궐 여러히 붓을 들어 우리 중에 일운 일노 글을 저술헌 거슨 처음부터 친히 보고 도의 일군된 자들이 우리의게 전하야 준 거시라 나도 즈세히 근원을 밀위여 슬핍으로 츠레로 써서 德오빌노 각하의게 보내는 거시 맞당헌 줄노 아노니 이는 너로 헌여곰 비헌 바의 確實함을 알게 함이로라 (『신약전서』 1906 누가 1장 1절~4절)

(2)는 대중매체어, (3)은 문학어, (4)는 학술어, (5)는 법률·행정어, (6)은 종교어 영역의 예를 든 것이다.²¹⁾ 대조의 편의를 위해서 대응되는 부분을 굵은 글씨로 보였다. (4가)의 국한혼용문 텍스트와 (4나)의 순한글 텍

20) 국한혼용문본의 책명은 원래의 것으로 보이지만, 한글본의 표지 제명은 나중에 써넣은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한글 박물관 소장 순한글 필사본의 표지 제명은 『乙未八月二十日스변보고서』로 되어 있다.

21) 교육어 영역의 자료로는 순한글 텍스트와 국한혼용문 텍스트가 병존하는 예를 찾지 못했다.

트는 대응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6가)와 (6나)는 모든 실사(實辭)가 대응하기 때문에 대응 부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4)의 경우는 (4나)가 의역이 많기 때문이고, (6)의 예는 축자역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시기 국한혼용문 텍스트와 순한글 텍스트가 병존하는 양상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차이가 큰 텍스트들을 함께 예로 들었다.

이들 병존 자료는 두 가지 면에서 이중적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사용 문자가 다르다는 점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용 문자가 다른 것이 문체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순한글 텍스트의 대응 부분이 국한혼용문의 대응 부분보다 현대 한국어에 훨씬 가깝다. 문체 현대화에서 순한글 텍스트가 앞섬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한혼용문 텍스트의 문체상의 특성이다. (2)~(5)의 예는 국한혼용문을 국문으로 번역한 것이고, (6)의 예는 국문을 국한혼용문으로 옮긴 것인데, (2가)~(6가)의 예들을 (1가')의 예와 비교해 보면 현대 한국어의 국한혼용문체의 문장과 태동기의 국한혼용문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가)~(6가)의 국한혼용문은 모든 어휘적 요소[實辭]를 한자로 적은 반면, 현대의 국한혼용문체인 (1가')에서는 고유어가 어휘적 요소로 등장하는 것이다. 국한혼용문 텍스트에서 어휘적 요소로 고유어를 사용하는 예는 태동기의 끝 무렵에 확대되며,²²⁾ 확립기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세력을 넓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떤 것인가가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2) 고유어가 어휘적 요소로 나타나는 이른 예는 1895년~1899년 사이에 간행된 학부 교과서류다. 한영균(2013)에서는 이것을 '국민소학독본류' 국한혼용문으로 구분하였는데, 보통학교의 교재로 쓰인 텍스트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1900년대의 말기의 한글과 한자의 병기를 보여주는 텍스트는 어휘적 요소에 고유어가 쓰인다는 점에서는 국민소학독본류의 국한혼용문과 비슷하지만 실제 고유어로 표기되는 어휘적 요소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 3.4. 참조

둘째는 이들이 별개 텍스트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데에 두 개의 텍스트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순한글본과 국한혼용문본의 병존은 독자 계층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방식의 병렬적 문어 사용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우리말을 우리글로 적는다는 명제를 실천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병존하는 텍스트가 문체상 그리고 어휘적으로 큰 차이를 가진 것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른바 언문일치라는 목표의 달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²³⁾ 또 다른 문제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이로서는 두 개의 텍스트를 만드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비경제적인 일이었다는 점이다. 같은 내용을 두 번 생산해야 하고, 이는 두 배 혹은 그 이상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독자의 확보라는 측면에 있었다. 『帝國新聞』과 『皇城新聞』의 경우처럼 어느 한 계층의 독자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두 계층의 독자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태동기의 이중적 문자 사용 및 이중적 문자 사용에 따른 텍스트의 이중성은 문어 생활의 통합을 위해서나 경제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였고,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문자 및 텍스트의 통합을 위한 방법론적 모색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그것이 한자와 한글의 병기를 통한 텍스트의 통합으로 나타난다.

23) 병존 텍스트 중 성경의 경우는 같은 내용이 전혀 다른 어휘로 표현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중국어[漢譯] 성경의 번역에서는 별개의 문자로 만들어진 성경까지는 용납할 수 있지만, 동일한 내용을 다른 어휘로 전달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선교사들의 일관된 생각이었고, 이의 극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화합본(和合本) 성경이다. 한국어 성경 번역에서도 확립기 초기에 들어서면 순한글 성경과 국한혼용문 성경의 (어휘적) 단일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4.2 참조.

4. 한글과 한자 병기 방식의 등장

태동기 끝 무렵, 태동기 국한혼용문이 현대적 국한혼용문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새로운 표기 방식이 나타난다. 한글과 한자의 병기가 그것이다. 이 시기의 한글과 한자 병기에는 ‘부속국문체’ 혹은 ‘한자 혼독 표기’로 일컬었던 방식과 ‘부속한문체’라고 일컬어진 방식 두 가지가 있다.

부속국문체 혹은 한자 혼독 표기란 본문을 한자로 적고 그 옆에 한글을 병기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7가)~(7다)가 그 예다. 부속한문체는 본문을 한글로 적고 그 중 한자어에 한자를 병기하는 표기 방식이다. (7라)가 그 예다. 부속국문체 및 부속한문체의 등장은 3.3.에서 다룬 순한글 텍스트 및 국한혼용문 텍스트의 병존에 뒤이은 문체의 변화인 한편, 현대적 국한혼용문의 형성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고리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문 중심의 문자 사용에서 한 단계 더 벗어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 (7) 가. 萬世報라名稱은 新聞은 何하를 爲하야 作하옵니
 아 韓人 國民의 智識을 啓發키를 爲하야 作하옵니라 噫
 社會를 組織하야 國家를 形成함이 時代의 變遷
 을 隨하야 人 智識을 啓發하야 野味 見聞
 文明에 進케 하며 幼穉 知覺으로 老成에 達케
 是 新聞 教育의 神聖함에 無過하다 謂할지라 是
 以하야 環球 萬邦에 流通하는 近世 風潮가 人
 民의 智識을 啓發키를 第一主義로 認定하야 新
 聞社를 廣設하고 文壇에 牛耳를 執하고 衮鉞의
 責任을 擔荷하야 已啓發한 人 智識도 益
 益 進歩키를 企圖하거든 況此 未啓發한 人
 民의 教育이야 엇지 一晷 抄를 遲緩함이 可하리

오 (『사설』, 『萬歲報』, 1906.6.17.)

나. 汗^땀을 썩러 雨^비가 되고 氣^{기운}을 吐^토하야 雲^{구름}이 되도록 人^{사람}
만흔 곳은 長安路^{서울길}이라 廟^묘洞^동도 都城^{서울}이언마는 何^{엇지}其^{그리}
쓸쓸하던지

廟^묘洞^동으로 드러가자 何^{어디}如^하 夾^{좁은}路^길이 此^{이리}曲^{소부러}지
고 彼^{저리}曲^{우부러}져서 行^{가다}看^보則^면窮^{막다른}路^길이 오가서 보면 또 通^통
쫘린路^길이라 其^그路^길에는 晝^낮에 人^{사람}이 잇스라업스라 故^고로
狗^개가 人^{사람}을 보면 짓거는 走^다라거는 何^{어디}寂^적적^적處^곳이라
(이인직 『단편』, 『萬歲報』 6호, 1906. 7. 3.)

다. 人^{사람}의 도리는 處^곳 人^{사람}의 行^행實^실이니 父^부母^모가 子^자女^녀를 자애
함과 자녀가 부모에게 孝^효도함이며 부부의 서로 和^화順^순함과 兄^형
弟^제의 서로 우애함은 此^이曰^대 같은 家^가族^족의 倫^륜紀^紀기니라 君^님금이 君^님
금의 事^일을 행하고 신하와 백성이 君^님금을 사랑하며 君^님금에게 忠^충
성하야 각기 其^그 일을 일함은 이 같은 國^국家^가의 倫^륜紀^紀기니라 人^{사람}
이 서로 信^믿음이 잇서 貴^귀賤^贱이 등분 잇심과 上^상下^하가 차례 잇슴
은 이 같은 社^사會^회의 倫^륜紀^紀기니라 그러한 고로 가족의 亂^{luan}
어지러운 즉 그 집이 敗^패하고 국가의 亂^{luan}기가 어지러운즉 그 國^국
가 亡^망하며 사회의 亂^{luan}기가 어지러운즉 그 人^인民^민이 衰^쇠하나니라
집을 興^흥이르키는 자는 人^인의 도리를 修^수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者^자
는 人^인의 도리를 守^수하며 사회를 正^정하는 자는 人^인의 도리를 扶^부
드나니 진실로 이러하면 家^가집에 在^잇서는 良^양어진 아달 되고 나라에
잇서는 良^양어진 民^민백성 되고 사회에 잇서는 良^양어진 人^인사람 되나니라 (유길
준, 『勞動夜學讀本』 1908, 경성일보사)

라. 녀자는 나라 百^백성^성된 자의 어머니될 사람이라 녀자의 教^교育^육이
발^발달^달된 후에 그 자녀로 하여곰 착한 사람을 일울지라 그런고로
녀자를 母^모친이 處^곳 家^가庭^庭 교육을 발달하야 國^국民^민의 智^지識^식
을 引^인도^도는 模^모範^範이 되느니라 (장지연, 『녀주독본』 상, 데일
과, 1908, 광학서포)

(7가)는 『萬歲報』 창간호에 실린 사설이다. 본문은 한자로 표기하고 한자 하나하나에 대해 한글로 당시의 한자음을 병기하였다. 경서언해류의 표기 방식과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국한혼용문 본문의 구성은 경서언해류와 전혀 다르다. 어휘적 요소를 모두 한자어로 표기하고 있어서 경서언해류의 문장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본문만 보면 태동기 국한혼용문 중 서유견문류(西遊見聞類) 국한혼용문과 같은 방식인데 한글로 한자음을 병기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²⁴⁾ 그런데 이러한 한자음 병기 방식은 이 시기 국한혼용문에서는 예외적이다. 한문 문식력을 가진 이들이 이런 글의 독자가 될 것이므로 이런 방식의 한자음의 한글 병기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7나)는 「혈의누」로 잘 알려진 이인직의 최초의 소설 「단편」이다. 역시 『萬歲報』에 실린 글인데, 한자에 대해 한자음이 아닌 훈을 부기한 예들이 나타나는 점과, 고유어 실사가 쓰인 점(뿌려, 되고, 만흔, 쓸쓸하던지 등)이 (7가)와 다른 점이다.

(7다)는 유길준의 『勞動夜學讀本』의 「제2과 人^{사람}의 道^도리^리」를 단락 구분을 없애고 옮긴 것이다. (7가), (7나)의 표기 방식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자를 혼독하기도 하고 음독하기도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부속국문체 내지 한자 혼독 표기 방식이 지나는 의미에 대해서는 사에구사(2000), 김영민(2008, 2009), 김병문(2014) 등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일본의 후리가나 표기와의 차이, 일차적 표기가 한글인지 한자인지, 그리고 이런 표기 방식의 의의 등이 논의 대상이었으며, 1900년대에 시험적으로 쓰이다가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속국

24) 경서언해류와 『西遊見聞』의 한자어 및 고유어 사용의 차이에 대해서는 한영균(2011 : 231-233) 참조.

문체 내지 한자 혼독 표기 방식은 1910년대~1920년대에도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18년~1923년 사이에 제일의 주관 하에 조선기독교서회에서 발행된 『聖經雜誌』도 이러한 방식의 표기법을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²⁵⁾

(7가)~(7다)와 비슷해 보이지만 문체 현대화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 (7라)와 같은 표기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김영민(2008 : 449)에서는 ‘부속한문체’라고 불렀는데, 본문을 순한글로 적고, 본문 중의 한자어 오른쪽에 한자를 붙이는 방식이다. (7라)와 같은 표기 방식의 출현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인데,²⁶⁾ 확립기 초기에 나타나는 현대적 국한혼용문의 맹아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4.1.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7가)~(7라)와 같은 표기 방식은 모두 3.3.에서 다루었던 바 이 시기에 공존 혹은 병존하던 순한글 텍스트와 국한혼용문 텍스트를 통합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김영민(2008 : 449)에서는 “독자의 신분과 계층에 따라 결정되던 문자 ‘分離’라는 상황을 문자 ‘統合’으로 이끌기 위한 당시대 지식인들의 힘겨운 노력과 연관된 것”이었고, “훗날 단

25) 『聖經雜誌』는 매호 100면 안팎의 분량으로 격월간으로 간행되었으며, *The Bible Magazine*이라는 제호로 책 마지막에 붙어 있는 영문 판권지를 통해서 중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1권 1호~3권 6호)과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1권 1호~6권 6호)에 전한다.

26) 태동기의 자료에서 한자를 병기한 최초의 예는 『太極學報』 7호에 실린尹貞媛(윤정원)의 글이다. 윤정원의 글은 부속한문체가 아니라 한글 다음에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이다. 간단히 예를 들어 둔다.

대대, 문명정도(文明程度)가 극도에 달한 금일, 이십세기(二十世紀)는 무습세계 인고, 홀 디경이면, 일편으로, 석탄세계(石炭世界)라, 흥여도 도홀지라, 금일문명의 데일, 리기(利器)로 치는, 기차기선(氣車氣船)과, 기타허다한 공장회사(工場會社)에, 흑석탄이업슬디경이면, 일촌일분(一寸一分)을 움죽일수업슬지라, (尹貞媛, 『獻身的精神』, 『太極學報』 7호, 1907. 2. 24.)

일한 문자 표기 체계를 활용한 독서 통합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필자는 문자의 통합에 텍스트의 통합이라는 요소가 더해지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텍스트의 통합이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텍스트의 생산 목적에 따른 사용역의 분화 및 그에 따른 서사방식의 선택이라는 현대 한국어의 문체 선택 방식이 맹아를 보이게 된다. 사용역에 따라서 순한글과 국한혼용이라는 서사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IV. 확립기 초기의 문체 특성

현대 한국어 확립기란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의 문체의 변화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문체가 확립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국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조선어나 한글의 위상이 이 이전이나 이후와 다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하나로 묶었지만, 이 시기는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이후 등 약 10년을 주기로 문체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문체에 대한 좀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확립기의 문체도 초기, 중기, 후기의 문체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확립기의 초기 즉 1910년대의 문체를 태동기의 것과 비교하는 데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태동기와 확립기를 구분할 문체사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확립기 초기의 문체는 한편으로는 3장에서 태동기의 문체 특성으로 다루었던 것을 이어받는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 태동기의 문체와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문어 사용에서 3.4.에서 이야기한 문자와 텍스트의 이중성 극복

을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한글 및 한자 병기 방식의 확산을 통해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현대적 국한혼용문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²⁷⁾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확립기 초기의 문체 특성을 다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 ① 한글 및 한자 병기 방식의 확산
- ② 현대적 국한혼용문체의 등장

1. 한글 및 한자 병기 방식의 확산

확립기 초기의 문체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김영민(2010)에서 ‘부속한문체’라고 지칭했던 병기 방식이 크게 확산되는 점이다. ‘부속국문체’가 본문을 한자로 적고 한글을 병기하는 방식이었던 데에 비해, 부속한문체는 본문을 한글로 적고 한자를 병기한다는 점이 문체상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부속국문체’에서는 한자(어)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음독과 혼독 병기 두 가지가 사용되지만, ‘부속한문체’는 어떻게 한자를 병기하는가 하는 차이가 있을 뿐, 한글로 표기된 한자어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²⁸⁾ 이런 양상은 한글 고전소설을 활자화해 출판하는 구할자본

27) 이 두 가지 변화는 특히 문학어 영역의 자료에서 두드러지는데, 문학어의 언어 사용 방식이 독자성을 확보해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문체 특성은 문학어와 그 이외의 경우로 구분해서 살필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8) 예외적으로 『선한쌍문서상고(鮮漢雙文西廂記)』(1916, 회동서관)와 같이 한글 본문의 구절 단위로 한문구를 병기하는 형식도 있다. 예시에서는 한글 본문 구절 다음에 [] 안에 한문구를 넣었는데, 이런 유형은 극히 드물 뿐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부속한문체’로 보기 어렵다. 일반적인 부속한문체가 한글 본문의 한자어에 한자를 병기하는 데에 비해 한문 원문을 구절 단위로 한글 구절에 병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와 같은 방식이다.

고소설에서 볼 수 있는데, 한글 옆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 것도 태동기의 한글 및 한자 병기 방식과 다른 점이다. (8)에 대표적인 예를 들어 둔다.

(8) 가. 명(明)나라 가정(嘉靖) 년간에 북경순天府(北京順天府)에 일위명 환이 이시니 성은 류(劉)오 명은 급(級)이니 쇼년등과호여 벼슬이 태즈쇼스(太子少師)에 니르고 위인이 공검인후호며 박학다지호더라 일즉 부인정씨(夫人鄭氏)로 금슬우지호고 종고락지호나 즈성(子姓)이 느짐을 근심호더니 부인이 중년에 호 남즈를 나오니 출류비범호지라(『샤씨남정기』 상, 1913, 영풍서관)

나. 던^나라^도도^도 남^남원^원부^부는 남^남중^중에 일^일흠^흠는 디^디대^대음^음이라 산^산도^도 명^명산^산이 업고 사^사름^름도 드^드러는 냥^냥반^반이 업스나 던^던라^도 호^호북^북판^판에서 사^사통^통오^오달^달호고 시^시화^화년^년풍^풍호여 민^민심^심이 순^순박^박호고 물^물식^식이 화^화려^려호니 이^이럼^럼으로 서^서울 냥^냥반^반들이 남^남중^중으로 슈^슈령^령을 살^살라면 미^미양^양 남^남원^원부^부사^사호^호기를 원^원호더라 남^남원^원 상^상넙은 들이 북^북은 전^전주^주오 서^서남^남은 고^고부^부운^운봉^봉신^신지 췌^췌쳐 가다가 그 중^중에 지^지씨^씨리 호^호북^북판 갖^갖치 도^도도^도록^록호게 되고 사^사면^면은 자^자지^지라^라지^지게 곱고 적^적은 토^토산^산이 들^들너 싸^싸엿^엿는디 그 속^속은 남^남원^원 상^상에서 도 가장 번^번화^화호 남^남원^원부^부중^중이라(『선^선한^한문^문춘^춘향^향년^년』)

“혹이 성탄의게 무러 갈오디[問於聖歎曰] 서상키는 엇지호야 비평호고 식엿노[西廂記何爲而批之刻之也] 성탄이 초연이 얼굴을 곳치고[聖歎悄然動容] 이러서 디답호야 갈오디[起立而對曰] 차흠디[嗟乎] 나도 췌호 그러흠을 아지 못호내[我亦不知其然] 그러호나 너 마음에 진실로 능히 췌 스스로 마지 못호노래[然而於我心則誠不能以自己也] 이제 호탕호 디겁이[今夫浩蕩大劫] 처음부터 이제밋체[自初迄今] 너 그 디만々년월을 아지 못호되[我則不知其有幾萬萬年月也] 디만々년월이[幾萬萬年月] 다 물 가고 구름 것치고 바람 달니고 번기 췌기듯호[皆如水逝雲卷風馳電掣] 다 가지 아니미 업고[無不盡去] 금년금월에 이르러 잠간 너 잇스되[而至於今年今月而暫有我] 이 잠간 잇는 나도[此暫有之我] 췌 일즉이 물 가고 구름 것치고 바람 달리고 번기 췌기듯 췌니 가지 아니치 못호지라[又未嘗不水逝雲卷風馳電掣而疾去也]”

傳)』, 이용한, 1913, 동미서시)

다. 湖^호南^남左^좌道^도 南^남原^원府^부는 東^동으로 地^지異^이山^산, 西^서으로 赤^적城^성 江^강山^산水^수 精^精神^신 어리어서 春^춘香^향이 삼^삼겨 있^있다 春^춘香^향 母^모 退^퇴妓^기로서 三^삼十^십이 넘은 後^후에 春^춘香^향을 처^처음 벨 제 꿈 가^가온^온디 엇^엇던 仙^선녀, 李^리花^화 桃^도花^화 두 가^가지^지를 兩^兩손^손에 갈^갈느 귀^귀고 하^하늘^늘노 느^느려와서 桃^도花^화를 내^내어 쥘^쥘며 이 꽃^꽃을 잘 갖^갖구어 李^리花^화 接^접접을 붓^붓쳤^쳤스^스면 오^오는 行^행樂^락 조^조호^호리^리라 李^리花^화 갓^갓다 傳^전할 곳^곳이 時^시刻^각이 急^급히^히로 匆^匆々^々히 셔^셔느^느노^노라 꿈 선 後^후에 孕^영胎^태하^하야 十^십 朔^삭만^만에 쏘 하^하늘^늘을 느^느앗^앗스^스니 桃^도花^화는 봄^봄香^향氣^기라 일^일흠^흠을 春^춘香^향이라 ㅎ^ㅎ앗^앗더라(『訂^訂正^正六^六刊^刊 獄^獄中^中花^화』(春^春香^香歌^歌演^演 訂)』, 이해조, 1911 初^초版^판/1914 六^六刊^刊, 보^보급^급서^서관)

(8가)는 각주 24)에 보였던 윤정원의 글처럼 한자어 다음의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모든 한자어에 한자를 병기하지는 않는다. 예로 든 구활자본 고소설보다는 1910년대에 간행된 신소설 텍스트 중 에서 이런 방식의 한자 병기를 보이는 텍스트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자를 병기한 예가 한 작품에 수십 개가 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런 방식의 한자 병기는 『강상련』(이해조, 1911, 광동서국), 『劔中化(검중화)』(지동욱, 1911, 신구서림), 『斷髮嶺(단발령)』(1913, 신구서림), 『신출귀몰』(황갑수, 1912, 동양서원) 등 191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8나)는 ‘선한문(鮮漢文)’이라는 관형어를 붙인 춘향전의 이본이다. 원칙적으로 한글 본문에 나타나는 한자어에는 모두 한자를 병기한다.²⁹⁾ 한글과 한자를 병기한 구활자본 고소설 중에는 이런 형식의 한자 병기를 보이는 텍스트가 많다. 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고본춘향전』(1913,

29) 예에서는 ‘토산, 남원, 변화’ 세 단어에는 한자를 병기하지 않았지만 의식적으로 한자를 병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병기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문관), 『금산사몽유록』(1915, 회동서관), 『독파삼국산양전기』(1918, 보급서관), 『몽결초한송』(1914, 신구서림), 『별삼설기』(1913, 조선서관), 『별주부전』(1913, 신구서림), 『소덕성전』(1914 동미서서), 『언한문서유기』(1913, 조선서관, 박문서관), 『창선감의록』(1913, 조선서관), 『홍경래실기』(1916, 신문관) 등이 있고, 소설 이외의 것으로 『金剛山實記』(1915, 유일서관), 『조선유람록(朝鮮遊覽錄)』(1917, 광학서포) 등이 있다.

(8나)와 비슷해 보이지만 현대 한국어의 국한혼용문체 형성과 좀더 밀접한 관련을 보여주는 예가 (8다)의 것이다. (8다)는 이해조가 춘향가를 바탕으로 재창작한 『獄中花』의 6판의 첫부분인데,³⁰⁾ 본문의 표기가 특징적이다. 고유어는 그대로 한글로 적고, 한자어는 한자로 적되 한글로 한자음을 병기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한자어만 한자로 적음으로써 한자어를 한글로 적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독성 문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한문을 선호한 계층의 욕구를 부분적이거나 충족시킨 것이다. 태동기 국한혼용문과 다른 점이라면 고유어로 적는 것이 나온 어휘들은 그대로 고유어로 적어서 불필요한 혼독 병기를 없앴다는 점이고, 한자 문식력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는 한자로 표기한 한자어에 한글로 음을 병기해 줌으로써 또한 한자 문식력이 없어도 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한글 병기문에서 한글로 병기한 한자음을 삭제하면 바로 현대적 국한혼용문과 같은 형태가 된다. 따라서 (8다)의 예는 현대적 국한혼용문 등장의 전단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³¹⁾

30) 예로 든 것은 표제에는 『春香傳』으로 내제 및 판권에는 『獄中花』로 되어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인데(청구번호 3634-2-104(2)), 판권지에 초판이 1911년으로 되어 있다. 이해조의 『獄中花』는 1912년 『每日申報』에 처음 연재되었다는 것이 통설인데 그보다 1년 앞서 구활자본으로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31) 1980년대 이전 한자 교육의 찬반과 관련한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한자 병기

2. 현대적 국한혼용문체의 등장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8다)와 같은 한글 병기에서 병기된 한글을 삭제하면 (9)의 예와 같은 형태가 된다. 이들은 조사나 어미의 용법은 아직 현대의 것과 많은 차이가 있지만, 텍스트의 형태는 오늘날의 국한혼용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유형의 국한혼용문 텍스트는 1910년대의 문학어 영역과 종교어 영역의 텍스트에서만 확인된다.

- (9) 가. 德宗 時節에 江南 日驛에 安陽 安平王³²⁾ 안날이 이스되 地方이 數千里오 南北에 큰 바다가 이스니 六十二州라 安平王의 姓은 德氏오 德文風의 十四代손이라 王事을 極키 다슬이니 堯舜적 시절이라 歲和年豐 하니 萬民而含哺鼓腹 하고 擊壤歌을 불우더라 此時에 國王이 두 아들을 두릿스되 長子의 名은 向이오 次子의 名은 成이라 또한 성이 孝誠이 至極하기로 王과 王妃 더욱 사랑하니 向의난 시괴하여 미양 히코져 하되 틈을 엿지 못하여 한하더라 各설이라 王이 成으로 하여금 長子 世子을 봉할려 하거늘 諸臣이 伏直주되 殿下은 성덕이 늦꼭쓰오니 츠셔을 복구디 마옵쇼셔 혼딘 王이 卽시 칭각하다가 마지 못하여 向으로 世子을 덩히시니 諸臣이 크게 즐겨 스은하고 물너 나오니 向의가 世子에 춤어하엇더라 가. 晝설 강남의 安평국이 잇스니 산천이 슈려하고 옥야철니며 보화 마는 고로 國부민강하며 의관 문물이 번성하여 남방의 유명하더라 國왕의 성은 적이니 積문공의 후예라 치국지되 요순을 효측히미 인심이 순박하며 國티민안하여 도불습유하고 야불폐문이라 國왕이 왕비로 동주 이십여년의 두 아들을 두었스니 장자의 명은 향 의오 次자의 명은 성의라 성의의 천품이 순후하고 괴골이 준슈하

방식에 대한 논의도 결국은 (8나)의 방식을 택할 것인가 (8다)의 방식을 택할 것인가를 둘러싼 것이었던 점을 상기하게 한다.

32) 원문에는 ‘旺’으로 되어 있음.

미 왕의 부뷔 과이하고 일국이 흙양하니 향의 미양 불측흔 마음으로 성의의 인효를 쇠기하여 음희홀 뜻을 두더라(동양문고 소장본 『적성의전』)

나. 大概 여러히 붓을 들어 우리 中에 일운 일노 글을 著述흔 거슨 처음부터 親히 보고 道の 일軍된 者들이 우리의게 傳야 준 거시라 나도 仔細히 根源을 밀위여 슬핍으로 츠레로 써서 데오빌노 閣下의게 보내는 거시 맞당흔 줄노 아노니 이는 너로 ्ह여곰 비흔바의 確實함을 알게 흙이로라 (『簡易鮮漢文 新約聖書』 1913/1936 누가 1장 1절~4절)

나. 대개 여러히 붓을 들어 우리 中에 일운 일노 글을 著述흔 거슨 처음부터 친히 보고 도의 일군 된 자들이 우리의게 전야 준 거시라 나도 次세히 근원을 밀위여 슬핍으로 츠레로 써서 데오빌노 閣하의게 보내는 거시 맞당흔 줄노 아노니 이는 너로 ्ह여곰 비흔바의 確實함을 알게 흙이로라(『신약전서 1906 누가 1장 1절 4절)

(9가)는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에 소장된 필사본 『德成義傳』의 첫부분이다. 『적성의전』의 이본으로 새로 추가되는 것인데,³³⁾ 자료 마지막에 ‘庚戌元月二十三日絶筆’이라는 필사기가 있어 1910년에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한영균 2014c : 204). 이 자료는 지금까지 필자가 확인한 현대적 국한혼용문 형식을 보여주는 고전 소설 텍스트 중에서 필사 연대가 분명하면서 한자어의 한자화가 비교적 정제된 것이어서 예로 들었다. 이 『德成義傳』 이외에 같은 방식의 국한혼용문을 사용한 고전 소설 텍스트로 『楚漢傳』³⁴⁾, 『유충렬전』³⁵⁾, 『洪吉童傳』,³⁶⁾ 『西廂記』,³⁷⁾ 『심청전』³⁸⁾ 등을

33) 이 『德成義傳』은 기존의 방각본이나 필사본과 비교할 때 서술 내용이 많이 다르다. 새로운 계열의 자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비를 위해 경관본 31장본의 모두 부분을 (9가)에 예로 들었다.

34)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본으로 (청구번호 고서(II) 811.93 75) 드문드문 한자어를 한자로 적었다. 표지 안쪽에 “大韓隆熙二年歲次戊申”이라는 기록이 있어 늦어도

확인할 수 있다.

(9나)의 예는 홍순탁 목사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 『簡易鮮漢文 新約聖書』(1913)의 누가복음 첫부분이다.³⁵⁾ (9나')의 순한글 『신약전서』(1906)의 해당 부분과 대비해 보면 국한혼용문의 형식이 현대의 국한혼용문과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 중의 한자어만 한자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실제 (9가)의 예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유경민(2011, 2014)에서는 이 『簡易鮮漢文 新約聖書』가 현대적 국한혼용문의 뿌리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4.1.에서 살핀 한글 고전 소설의 한글 및 한자 병기 방식, (9가)와 같은 국한혼용문 고전 소설의 존재가 확인되고 그 간행 시기가 『簡易鮮漢文 新約聖書』보다 앞서는 것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簡易鮮漢文 新約聖書』의 국한혼용문을 현대적 국한혼용문의 뿌리로 보기는 어렵다. 『簡易鮮漢文 新約聖書』의 표기법은 홍순탁 목사의 창안이라기보다는 그 시절에 고전 소설의 표기 방식 중의 하나로 통용되던 (9가)와 같은 국한혼용문화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08년 이전에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필사연대로는 가장 이른 것인데, 한자어의 한자화가 소략해서 완전한 형태의 국한혼용문으로 보기 어렵다.

- 3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필사본인데(청구번호 한古朝48-240), 연세대 소장의 『楚漢傳』과 마찬가지로 드문드문 한자어를 한자로 적은 자료이다. 필사 연대는 미상이다.
- 36) 김동욱 소장본이었던 필사본 89장본으로 『필사본 고소설 총서』 78에 실려있다. 필사 연대는 미상이다. 권영철 · 이윤석(1991) 참조.
- 37) 『西廂記』는 4종의 국한혼용문 필사본이 현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승민 소장본, 규장각본, 국민대본, 단국대본 등이 그것이다. 이중 국민대본이 완전한 형태의 현대적 국한혼용문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하였다. 필사연대는 미상이다.
- 38) 필자가 최근에 입수한 필사본으로 앞뒤의 낙장이 있어 필사기 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질, 표기법 등으로 보아 19세기말~20세기 초의 자료로 보인다.
- 39) 『簡易鮮漢文 新約聖書』의 서지 사항과 국한혼용문의 특성에 대해서는 유경민(2011, 2014) 참조.

V. 결론

이 글은 현대 한국어의 성립 과정을 밝히기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로 후기 근대 국어 시기와 현대 한국어 사이에 ‘현대 한국어 성립기’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과, ‘현대 한국어 성립기’를 태동기, 확립기, 안정기의 세 시기로 하위 구분할 것을 제안하고, 각 시기의 문체 상의 특성을 밝혀 제안의 근거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논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장에서는 개항 이후 약 90년 사이에 일어난 언어문화사적 변혁이 지니는 의의를 정리하고, 그를 바탕으로 현대 한국어 성립기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논하였고, 2장에서는 문체의 변화를 검토하는 데에 서사방식(書寫方式)과 사용역(使用域)의 두 가지를 검토의 축으로 삼을 필요성을 보였다. 3장에서는 후기 근대 국어 시기와 현대 한국어 태동기를 구분해 주는 문체 특성으로 ① 한글의 위상 변화와 한글 사용의 확산, ② 다양한 유형의 국한혼용문 사용, ③ 순한글 텍스트와 국한혼용문 텍스트의 공존 및 병존, ④ 한글과 한자 병기 방식의 등장이라는 네 가지를 들어 정리하였고, 4장에서는 태동기와 확립기를 구분해 주는 문체 특성으로 ① 한글 및 한자 병기 방식의 확산, ② 현대적 국한혼용문체의 등장이라는 두 가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진행 과정에서 현대적 국한혼용문체의 형성과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면서 병기(併記)라는 방식을 사용한 텍스트는 이미 알려진 것이지만, 특히 본문의 한자어만을 한자로 쓰면서 한글을 병기하는 새로운 병기 방식을 보여주는 소설 텍스트와 순한글 고전 소설의 본문에 나타나는 한자어만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국한혼용문을 보여주는 예가 그

것이다(예문 (8다) 및 (9가, 나) 참조). 이들 자료는 지금까지의 국한혼용문체의 형성과 관련한 연구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것들로 이들 자료를 통해서 현대적 국한혼용문의 형성 과정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첫째는 태동기의 국한혼용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대적 국한혼용문으로 전환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적 국한혼용문의 등장이 문학어 영역 그것도 한글 고전 소설의 국한혼용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 글을 통해 밝힌 이 두 가지 사실이 현대 한국어 문체 형성사라는 관점에서 가지는 의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지금까지의 한국어의 현대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현대 한국어 문체의 성립이 ‘懸吐體 > 直譯諺解體 > 意譯諺解體 > 國文體’(심재기 1992 : 192-194) 혹은 ‘구절현토체 > 어절현토체 > 전통국한문체’(민현식 1994 : 122-131) ‘한문체 > 한문구체 > 한문어체 > 한자어체’(홍종선 2000) 등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기본적으로 한문의 해체 과정이 현대 한국어 문체 형성 과정이라고 파악한 결과인데, 이러한 관점을 따르는 경우, 현대적 국한혼용문의 형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

첫째는 이러한 관점을 따르면 한국어 문어의 현대화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태동기 국한혼용문의 사용 양상을 보면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이 어렵다. 3.2.에서 살핀 것과 같이 태동기에 쓰인 국한혼용문은 아주 다양하다. 다양한 유형의 국한혼용문이 동시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문어 현대화가 순차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제는 이러한 설명을 따를 경우 태동기 국한혼용문이 현대적 국

한훈용문으로 변전하는 과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의역언해체 혹은 한문어체에 쓰인 한자어 중에는 현대적 국한훈용문체에서 다른 한자어 혹은 고유어로 나타나는가 예들이 많은데, 왜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⁴⁰⁾

태동기의 말기에 이르러 등장하는 현대적 국한훈용문은 기존의 관점처럼 한문의 해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4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한훈용문과 순한글이라는 두 가지 서사방식으로 만들어지던 텍스트를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 다양한 유형의 한글과 한자의 병기 방식 중에서 본문에 나타나는 한자어만 한자로 적으면서 해당 한자에 한글을 병기하지 않는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산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태동기 국한훈용문에 쓰인 한자어 중에서 당대 사람들이 일상적 문어에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부자연스러운 한자어들이 현대적 국한훈용문에서 고유어 혹은 다른 한자어로 대체되는 까닭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현대적 국한훈용문에서는, 순한글 텍스트라면 쓰이지 않을 법한, 한문 문법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한자어는 자연히 도태되고, 전통적 순한글 텍스트에서도 나타나는 한자어들만이 한자로 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바 현대적 국한훈용문의 맹아가 문학어, 그것도 한글 고전 소설의 국한훈용문화를 통해 등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국한훈용문 성정의 보급을 통해 확산된다는

40) 예를 들어 안예리(2013a : 123-129)의 분석 결과는 국한훈용문 텍스트에 나타나는 '단음절 한자+하다'형 한자어가 순한글 텍스트에서는 그대로 쓰이기도 하고, 고유어 용언으로 대체되기도 하며 2음절 한자어로 대체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대체에서 규칙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현대적 국한훈용문에서는 대부분 순한글 텍스트의 어휘가 그대로 반영된다.

사실은 한국어의 근대화가 문학어 및 종교어 영역의 텍스트를 통해 시발되고 확산되어 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료적 사실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등 여타 언어의 근대화가 문학어 혹은 종교어에서 출발한다는 것과 평형을 이루는 것으로, 한국어의 문어도 일반적인 현대적 문어의 형성 과정에서 벗어 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

권영철 · 이윤석, 『『홍길동전』 필사본 89장본 해제』, 『한국전통문화연구』제7집,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91, pp.279-340.

권용선, 『1910년대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과정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김민섭, 『기독교청년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김병문, 『근대계몽기 한자 혼독식 표기에 대한 연구』, 『동방학지』165, 2014, pp.101-128.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솔출판사, 1997/2003.

_____, 『『만세보』와 부속국문체 연구』, 『대동문화연구』6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pp.415-453.

_____, 『근대계몽기 문체 연구 - 유길준을 중심으로』, 『동방학지』14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9, pp.391-428.

_____, 『근대 유학생 잡지의 문체와 한글체 소설의 형성 과정 : 『여자계』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4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pp.39-69.

김완진, 『한국어 문체의 발달』, 이기문 외(1983), 『한국 어문의 체문체』 일지사, 1983, pp.229-254.

김상대, 『중세 국어 구결문의 국어학적 연구』, 한신문화사, 1985.

_____, 『口訣文의 設定에 대하여』, 『국어학』16, 국어학회, 1987, pp.177-196.

김주필, 『19세기말 국한문의 성격과 의미』, 『震檀學報』103, 震檀學會, 2007, pp.193-218.

김재영, 『『대한민보』의 문체 상황과 독자층에 대한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40,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pp.265-308.

김형철, 『개화기 국어 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김효원, 『‘이가원본’을 통해 본 조선후기 『서상기(西廂記)』 한글번역의 수용과 변용』, 『중국어문학지』40, 2012, pp.127-157.

김홍수, 『이른바 개화기의 표기체 유형과 양상』, 『국어문학』39, 국어학회, 2004, pp.58-77.

남기심, 『개화기의 국어 문체에 대하여』, 『연세교육과학』12, 연세대학교, 1977,

pp.71-86.

- 민현식, 『開化期 國語 文體에 대한 綜合的 研究 (1)』, 『국어교육』83, 국어교육학회, 1994, pp.113-152.
- 문혜윤, 『1930년대 국문체의 형성과 문학적 글쓰기』,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박진영, 『번역·번안소설과 한국 근대소설어의 성립 - 근대소설의 양식과 매체 그리고 언어』, 임형택 외, 2008, pp.267-299.
- _____, 『번역과 번안의 시대』, 소명출판, 2011.
- 배수찬,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 과정 연구-논설문의 성립 환경과 문장 모델을 중심으로』, 소명출판, 2008.
- 사에구사 도시카즈, 『이중표기와 근대적 문체 형성 - 이인직 신문 연재 『혈의누』의 경우』, 『현대문학의 연구』15, 한국문학연구학회, 2000, pp.41-72.
- 송철의 외, 『일제 식민지 시기의 어휘 - 어휘를 통해 본 문물의 수용 양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_____, 『한국 근대 초기의 어휘』,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 십재기, 『개화기 교과서 문체에 대하여』, 『국어국문학』107, 국어국문학회, 1992, pp.181-194.
- _____, 『국어 문체 변천사』, 집문당, 1999.
- 신중진, 『개화기 신문과 잡지 자료의 국어사적 현황과 분류』, 『국어사연구』13, 2011, pp.111-137.
- 안대회, 『조선 후기 이중 언어 텍스트와 그에 관한 논의들』, 『대동한문학』 24, 대동한문학회, 2006, pp.203-231.
- 안예리, 『시문체의 국어학적 분석』, 『한국학논집』46, 2012, pp.233-264.
- _____, 『“1음절 한자어+하다” 용언의 통시적 변화 -말뭉치 언어학적 접근-』, 『한국어학』58, 2013a, pp.107-133.
- _____, 『20세기 전반기 국어의 문장 구성에 대한 연구 : 대중종합지 『삼천리 (1929-1942)』의 말뭉치언어학적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b.
- 유경민, 『國漢混用文 聖經의 定着 過程 -『簡易鮮漢文 新約聖書』를 중심으로』, 『국어사연구』13, 국어사학회, 2011, pp.267-305.
- _____, 『국한혼용문 성경과 현대 한국어 문체의 상관성』, 『반교어문연구』38, 반교어문학회, 2014, pp.163-193.
- 이기문, 『개화기의 국문 연구』, 일조각, 1970.

- 이병근 외, 『한국 근대 초기의 언어와 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 _____, 『일제 식민지 시기 한국의 언어와 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이윤석, 『『홍길동전』 필사본 89장본에 대하여, 『애산학보』9, 애산학회, 1990, pp.93-115.
- _____, 『홍길동전 연구-서지와 해석』,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7.
- _____, 『고소설의 표기방식』, 『고소설연구』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pp.371-403.
- 이철찬, 『대한제국시대 학부의 도서편찬 및 간행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 이호권, 『조선시대 한글 문헌 간행의 시기별 경향과 특징』, 『한국어학』41, 한국어학회, 2008, pp.83-114.
- 임상석,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2008.
- 임형택 외, 『흔들리는 언어들-언어의 근대와 국민국가-』,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
- 정병설, 『조선 후기 한글·출판 성행의 매체사적 의미』, 『진단학보』106, 진단학회, 2008, pp.145-164.
- 정한나, 『1910년대 전반기 『매일신보』 문체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한기형 외, 『근대어, 근대매체, 근대문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
- 한기형, 『매체의 언어분할과 근대문학 - 근대소설의 기원에 대한 매체론적 접근』, 임형택 외, 2008, pp.241-265.
- 한영균, 『현대 국한혼용문체의 정착과 어휘의 변화』, 『국어학』51, 국어학회, 2008, pp.229-256.
- _____, 『문체 현대성 판별의 어휘적 준거와 그 변화』, 『구결연구』23, 구결학회, 2009, pp.305-342.
- _____, 『서유견문 문체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어학』62, 2011, pp.225-269.
- _____, 『근대개봉기 국한혼용문의 유형·문체특성·사용양상』, 『구결연구』30, 구결학회, 2013, pp.219-256.
- _____, 『『서유견문』 용언류 연구』, 『구결연구』33, 구결학회, 2014a, pp.394-441.
- _____, 『다중 번역 서사물에 대한 기초적 연구』, 『국어사연구』19, 국어사학회, 2014b, pp.125-169.
- _____,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소장 자료의 국어사적 가치』, 『열상고전 연구』41집, 2014c, pp.191-215.
- _____, 『한글 필사 자료의 국어사를 위하여-후기 근대국어 시기를 중심으로』, 『국어

- 사연구』20, 2015, pp.167-191.
- 허재영, 『근대 계몽기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향』, 『국어사연구』13, 국어사학회, 2011, pp.185-209.
- 홍기원, 『혜경궁의 읍혈록 상, 하』, 민속원, 2009.
- 홍종선, 『개화기 시대 문장의 문체 연구』, 『국어국문학』117, 국어국문학회, 1996, pp.33-58.
- _____, 『현대 국어 문체의 발달』, 홍종선 외, 『현대 국어의 형성과 변천 3 : 문체, 어휘, 표기법』, 박이정, 2000, pp.9-30.
- 황지영, 『1910년대 잡지의 특성과 유학생 글쓰기-『學之光』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황호덕, 『한국 근대형성기의 문장배치와 국문담론』,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Abstract

On Setting-up ‘Establishing stage of Modern Korean’
and Subdivision of the Era

Han, Young-Gyun

This paper aims to suggest the needs for ‘Setting up stage of Modern Korean’ and to subdivide the era into three stages, namely ‘beginning period’, ‘settling period’ ‘stabilizing period’, and show the linguistic, stylistic evidences for the suggestions. The discussions in this paper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In chapter 1, based on the linguistic-cultural revolutions in this period, the author argued that there are necessities for the term to distinguish this period from the traditional ‘Late Modern Korean(from 17th century to 19th century)’ and ‘Modern Korean(from 1960 up to now)’ and to subdivide this period. In chapter 2, the author proposed two axes for the study of the linguistic styles of the period, ways of transcriptions and register. In chapter 3, the author showed the stylistic characteristics in ‘beginning period’. ① Change of the status of Hangul and spreading of the use of Hangul in various register ② The use of various kinds of Mix-scripts ③ Co-existence and parallel existence of the texts in Pure Hangul texts and Mixed-scripts ④ The appearance of the texts which shows co-use of Hangul and Chinese characters. In chapter 4, the author showed the stylistic characteristics in ‘settling period’. ① The spreading of co-use methods of Hangul and Chinese characters ② The appearance of Morean Mixed-scripts texts which differ from the Mixed-scripts in ‘beginning period’.

Key Word : Establishing stage of Modern Korean, Mixed-Script, co-writing of Hangul and Chinese character, Modern Mixed-Script

한영균

소속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 yghan@yonsei.ac.kr

이 논문은 2015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5년 8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8월 10일 게재 확정됨.